



## 열아홉번째 이야기

### FTS를 마치며

34년 다닌 회사를 은퇴하며 여유를 갖고 쉬면서 무엇을 해볼까 천천히 생각해보려던 나의 계획은 비 코리아의 온 비아 기초과목을 2015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성경 지식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에서 교만이 겸손함으로 바뀌며 더욱 열심히 학습에 매진하게 되었다.

성경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이며 방학 기간 동안도 쉬지 않고 여러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며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아는 기쁨을 전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TS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것을 확실히 알고 또한 남들과도 함께 이러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FTS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다.

FTS 기간은 학생으로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배우던 때와는 달리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인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하여 나에게도 질문을 해가며 학습계획서를 구상하며 만들고, 또 인도할 때, 남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은혜와 기쁨이 되는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체험의 순간들을 겪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딤후2장 2절의 말씀들이 뇌리에 박히며 재생산이 나의 의무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임을 깨닫게 되었다.

복학 후 JOY선교회 활동을 하며 앞으로 나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직장 선교였고 이를 소망하며 시작한 직장 생활이 어느덧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룬 것 없이 은퇴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FTS 과정은 은퇴 후의 삶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다른 문화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국내외 어느 곳이 되었든 가서 먼저 배운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배워 아는 것을 디모데 후서 2장2절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생산의 기쁨과 책임을 공유하는 소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



#### 김 승 규 (1956년 생)

- 1979년 군대에서 회심/JOY선교회 활동
- 1982년 고대 통계학과 졸업
- 1982~2015년 한화그룹 금융회사 재직  
한화종합금융, 파이낸스, 자산운용, 저축은행장 등 역임)
- 가족관계:  
부인: 김 은 일 권사  
자녀: 출가한 딸 2명

---

#### BEE 소식

---

- 6.28~7.3 A 국 아웃리치팀이 현지 땅을 밟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여 주श्य요.